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May 24, 2026, 10:30 a.m.

성령 강림 주일 (Year A)  
Day of Pentecost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http://www.siloamkbc.org)

---

모임 안내 Gatherings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 예배 순서 WORSHIP ORDER

---

예배 인도자 Presider

###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H183 빈들에 마른 풀 같이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C1102 마지막 날에 In the Last Days

C1022 성령이 오셨네 The Comforter Has Come!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요한복음 John 20:19-23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성령이 오셨네 The Holy Spirit Has Come!

###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C1023 오 나의 자비로운 주 Spirit Song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

##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전도를 위해 아래 물품을 주문했습니다.

- A-Frame 사인 판
- 현수막
- 시장 전도 버스킹을 위한 전단지

---

##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

## THE FIRST LESSON 민수기 NUMBERS 11:24-30

---

- 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와 말씀은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26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27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29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0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

## 시편 PSALM 104:24-35

---

- 24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25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26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27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1 여호와와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2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33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4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 본문 함께 살펴보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첫 번째 편지는 교회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특히 성령의 은사(spiritual gifts)를 두고 서로를 비교하며,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지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12 장 3-13 절을 통해 성령의 은사적 다양성이 교회를 나누는 무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고유한 역동성임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는 주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동일한 한 성령의 역사 아래 있음을 확실히 합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을 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원천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방언과 통역 등 다양한 은사들은 공동체의 유익(the common good)을 위해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도입하여 교회의 유기적 연합을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지체가 다 달라도 결국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세상적인 신분과 배경을 초월한 복음의 절대적 연합을 제시합니다.

##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 1. 성령의 주권과 다양성 (The Sovereignty and Diversity of the Spirit)

본문은 성령의 철저한 주권과 그에 따른 아름다운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은사는 인간이 쟁취하거나 자랑할 수 있는 성취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뜻대로"(11 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획일화된 집단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의 모임으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개인의 은사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근거가 됩니다.

### 2.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은사 (Gifts for the Common Good)

바울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시는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7 절)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유익이란 개인의 영적 과시나 만족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나를 빛내기 위함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해 잠시 위탁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은사의 참된 가치는 그것이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위해 사용될 때 증명됩니다.

###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적 연합 (Organic Unity in Christ)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의 뿌리 깊은 계급적, 민족적 장벽(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한 성령을 마심으로써 교회 안에서 완전히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적 조직이나 이익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성령으로 피가 통하는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존재하므로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은사주의적 갈등과 분열의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직분이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반대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주권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영적 우월감이나 패배감에 빠지곤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시간,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과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신앙 신앙은 은사마저도 개인의 영적 만족이나 커리어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다른 지혜나 지식, 혹은 섬김과 위로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곁에 낙심해 있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라는 성령의 세밀한 요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가르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허물어지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이념, 세대, 경제적 수준, 인종적 배경에 따라 교회가 나뉘고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나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이들을 성령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용납하고 영적으로 융화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본문 7 절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교회나 소그룹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혹은 재능과 시간)를 통해 공동체를 유익하게 했던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2.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은사나 직분을 보며 은연중에 영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열등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이 이 문제에 어떤 해답을 주나요?
3.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온전한 연합을 가로막는 사회적, 문화적, 혹은 개인적 '장벽'은 무엇이며, 이를 허물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월요일: 은사 감사와 성찰 -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와 자연적 재능, 물질적 자원들을 노트에 적어봅니다. 그것들을 주신 성령의 주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화요일: 보이지 않는 지체 격려하기 - 교회 공동체 내에서 드러나지 않는 곳(청소, 주차, 행정, 방송 등)에서 묵묵히 섬기는 지체 한 명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짧은 문자나 커피 쿠폰을 전합니다.

수요일: 비교 의식 내려놓기 - 하루 동안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말이나 생각을 의식적으로 멈춥니다.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은사로 칭찬받을 때, 시기 질투 대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목요일: 장벽 허물기 대화 - 실천: 평소 나이, 배경, 성향이 달라 대화해 보지 못했던 공동체의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짧은 담소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합니다.

금요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구체적 봉사 - 내가 가진 은사(예: 위로의 말, 구제, 지혜, 찬양 등)를 이번 주말에 어떻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소박하게라도 실행에 옮깁니다.

##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사용하옵소서. 남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나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사들을 오직 공동체의 유익과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겸손히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세상적 장벽들을 허무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서로를 깊이 용납하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THE GOSPEL 요한복음 JOHN 20:19-23

---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